

# 파리의 ‘포장된 개선문’ 설치와 시사점

유무종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도시설계사

2021년 9월 18일 수천 명의 사람이 상젤리제 거리에 모여 프랑스의 위대한 기념비 중 하나가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코로나19로 당초 설치가 예정되었던 2020년 9월보다 1년 정도 늦은 2021년 7월 16일,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약 1,200명의 작업자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반짝이는 블루실버색의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천으로 파리의 개선문을 둘러쌌다.

이 ‘포장된 개선문’은 대표적인 대지예술가이자 설치 예술가 부부 크리스토(Christo, 1935~2020)와 잔클로드(Jeanne-Claude, 1935~2009)의 작품이다. 크리스토는 1962년에 처음으로 개선문의 포토몽타주를 만들었고, 1988년에는 콜라주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그가 계획한 지 60년 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1,400만 유로(약 187억 원)의 설치 가격에 적잖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리스토는 이 설치물을 작업하는 데 공적 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작가의 예비 연구와 드로잉 및 콜라주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부부가 프랑스에서 벌인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5년 그들은 이미 폰네포 다리를 포장한 경험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도시에 있는 역사적 기념물들을 천으로 가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는 대지예술가로서 입지가 확고하고, 그들의 작업은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왔다.



포장된 개선문

© 쾨르웨이

**도심 속 건축과 예술, 뜨거운 감자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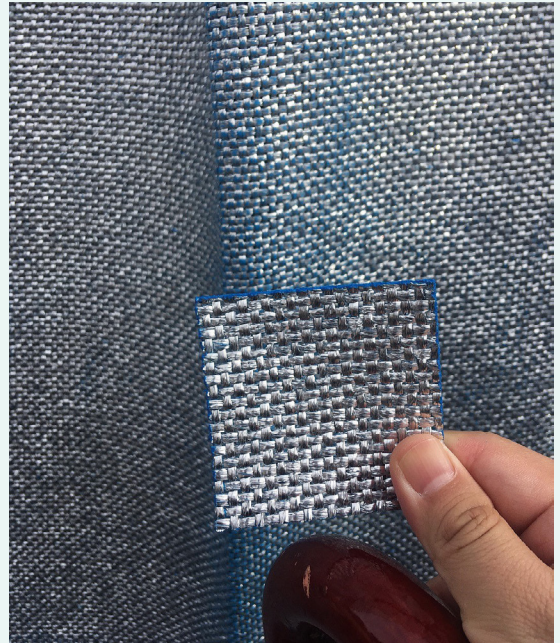
이번 설치에 있어서 파리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시민을 비롯한 프랑스 국민이 개선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개선문은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넋을 달래는 한편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 기록과 지휘관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다. 개선문 바로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무덤이 있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성화가 점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평등·박애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을 프랑스만의 방법으로 기리고 있으며, 개선문은 그 역사적 상징 중 하나이다.

설치가 발표된 이후 프랑스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을 천으로 ‘숨기려는 열망’을 드러낸 크리스토의 유작은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켈리(Christine Kelly)는 포장된 개선문의 전시를 마치고 그 철거가 시작된 10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덮여 있던 개선문을 비교며) 나는 무호흡증에 걸려 있었다. 파리는 역사의 화려함을 되찾고 있다”라며 작품에 느꼈던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카를로 라티(Carlo Ratti)는 르몽드(Le Monde)의 칼럼을 통해 생태학적인 이유로 “개선문을 풀어 달라”라고 쓰기도 하였다. 환경적 관점\*\*에서 기념비를 포장하는 2만 5,000m<sup>2</sup>의 천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과 정치인들 또한 프랑스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며 ‘고귀한’ 이미지를 파괴하려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을 비난하면서 작품 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파리스징은 이 작업과 관련하여 작품 설치에 지불한 내역이 전혀 없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작품이 전시되는 날 “시민의 세금이 전혀 들지 않고 국가의 영향력에 기여하는 걸작”이라고 말하며 작가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 천 작업이 추가 되는 폐선 산업은 이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물 생산 공정은 27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을 소비하는 맥락에서 2만 5,000m<sup>2</sup>의 직물을 만드는 데 드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마중



포장된 개선문 작업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천(상)과 작품 설치 때부터 철거 때까지 꺼지지 않았던 추모공간의 불(하)



### 하나의 설치 미술이 도시에 던지는 메시지

비난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를 받으며 올해 9월 크리스토의 '포장된 개선문'이 전시되었다. 많은 시민이 직접 그의 작품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뜨거운 토론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전시 감상은 무료로 이루어졌으며, 주변 차량을 통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를 진행하는 중에도 개선문을 향한 파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듯, 재향군인협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프랑스를 위해 싸운 무명의 군인들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불꽃을 다시 피우는 매일의 의식과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크리스토의 작업은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도시와 도심 속 건축유산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매일 개선문을 스치듯 지나가는 파리시민들에게는 천으로 만들어진 실루엣으로 재정의된 도시의 풍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크리스토는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우리는 도시공간을 빌려서 며칠 동안 거기에 부드러운 변형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우

리는 건물과 풍경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도시에 던지는 그들의 메시지는 익숙함에 사라져 가는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 국내의 시사점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스스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즉 현재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비록 그것이 짧고 실험적일지라도 변화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10년 전 런던의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피오나 라비(Fiona Raby)와 안토니 던(Anthony Dunne)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토가 사용하는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특히 관료주의나 정치 및 관습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거부하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필요하다.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건축과 관련이 있다. 더구나 도심 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이번의 사례는



© 아마에

포장된 개선문을 직접 만지는 아이들(좌)과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파리시청(우)



포장된 개선문 외부(상)와 내부(하)

더욱이 건축과 도시의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기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처럼 도심 속 건축물을 이용한 설치미술은 도시, 건축,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거나 편향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끼며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의문과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도심 속 설치 예술’이 국내에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크리스토 & 잔클로드 홈페이지. <https://christojeanneclaude.net>
- 2 Capps, K. (2021.9.22.) In Paris, the Wrapped Arc de Triomphe Is a Polarizing Package. Bloomberg CityLab.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1-09-21/wrapped-arc-de-triomphe-delights-divides-paris>
- 3 Bacon, A. (2021.9.13.) L'Arc de Triomphe emballé par Christo divise les internautes. Sud Ouest. <https://www.sudouest.fr/france/l-arc-de-triomphe-emballe-par-christo-divise-les-internautes-5852509.php>
- 4 My, B., Rizhlaine, F., Lauren, t P., Cécile, D., Graziella, L. (2021.10.3.) The Arc De Triomphe, Wrapped; Tribute to Christo, Goes Down This Sunday October 3. Sortir à Paris. <https://www.sortiraparis.com/arts-culture/exposure/articles/189145-the-arc-de-triomphe-wrapped-tribute-to-christo-goes-down-this-sunday-october-3/lang/en>
- 5 D'Angelo. (2021.10.4.) PHOTO Christine Kelly heureuse de retrouver l'Arc de Triomphe sans l'œuvre de Christo, elle fait réagir les internautes. Voici. <https://www.voici.fr/news-people/photo-christine-kelly-heureuse-de-retrouver-larc-de-triomphe-sans-oeuvre-de-christo-elle-fait-reagir-les-internautes-713881>